

<https://doi.org/10.22643/JRMP.2018.4.2.43>

Registration candidate journal of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NRF)

Jae Min Jeong^{1,2,3*}

¹Department of Nuclear Medicine, Institute of Radiation Medicine,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Republic of Korea

²Cancer Research Institute,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Republic of Korea

³Department of Radiation Applied Life Science,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Republic of Korea

대한방사성의약품학회지 Journal of Radiopharmaceuticals and Molecular Probs (JRMP)는 올해 한국연구재단 (National Research Foundation)의 등재후보지가 되었다. 우리와 같은 작은 학회가 등재후보지를 낸다는 것은 참으로 감격스러운 일이다. 등재후보지는 2년 후에 심사를 받아 등재지로 될 자격을 가진다. 등재지가 되면 좋지 만 등재후보지로 유지가 되어도 괜찮다. 왜냐하면 등재후보지나 등재지에 실린 논문은 한국학술지인용색인 (Korea Citation Index; KCI)에 등록이 되어 인터넷 검색이 가능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KCI 홈페이지 (<https://www.kci.go.kr/kciportal/main.kci>)에 들어가 JRMP의 문헌을 검색해보니 잘 검색되고 본문 pdf 파일까지 나온다. 그런데 pdf 파일이 전체가 나오지는 않고 앞부분만 나온다. Google에서 제목을 입력하여 검색했더니 대부분의 논문이 검색이 되지 않는다. 아마도 Google에서 검색이 되려면 시간이 좀 더 걸리는 모양이다. 한 논문은 Google에서 제목으로 검색이 되었는데 국가과학기술정보센터 (NDSL)로 연결이 되면서 전문 pdf 파

일을 볼 수 있었다. 어쨌든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가 됨으로써 인터넷 검색이 가능하게 되어 우리 학술지는 큰 발전을 이루게 되었다.

이러한 발전은 부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들 그리고 학회 회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편집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이다.

우리 학술지가 더욱 더 발전하기 위하여는 좋은 논문을 많이 실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투고를 기대한다. 그리고 투고된 논문의 심사도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편집 업무를 하다보면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거절하거나 제때 심사를 해 주지 않거나 또는 불성실한 심사를 하는 경우 큰 어려움을 느끼게 된다. 논문을 심사하는 것은 아직 학술지에 발표되지 않은 최신 연구결과를 다른 사람보다 먼저 볼 수 있는 특권을 누리는 것이기도 하고, 이는 학자로서 하여야 하는 권리와 의무이다. 자기가 귀찮다고 논문 심사를 외면하는 것은 학술지의 발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발전을 위하여도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다.

Received: December 12, 2018

Corresponding Author : Jae Min Jeong, Ph.D. Department of Nuclear Medicine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101 Daehangno Jongno-gu, Seoul 110-744 Korea

Tel: +82-2-2072-3805, Fax: +82-2-745-76, E-mail: jmjng@snu.ac.kr

Copyright©2018 The Korean Society of Radiopharmaceuticals and Molecular Probes

앞으로도 우리 JRMP는 계속 발전하여 빨리 등재지가 되고 더 나아가 세계적인 학술지가 되기를 기원한다. 등재지가 되면 연구재단에서 지원하는 학술지발간 지원을 받은 가

능성이 높아진다. 그 뿐만 아니라 한국과학기술총연합회에서 지원하는 학술지지원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러한 지원을 받으면 우리 학회의 재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